

매일경제 기자 리포트

김석동 명예기자
지평인문사회 대표

김석동의 실크로드 대장정 ④

만주는 대제국 고조선의 땅이다. 고조선의 후예들이 부여, 고구려, 발해를 비롯한 여러 한민족 국가를 건설했던 곳이며, 근세에 들어서는 한반도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삶을 개척했고,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의 진원지이자 거점이 되었던 곳이다. 이래저래 한민족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땅이다. 동북아역사재단의 도움으로 다시 만주 대륙을 찾았다. 이번 탐사여행은 랴오닝성(遼寧省) 선양(瀋陽)에서 지린(吉林) 성 훈춘(琿春)까지 동서를 가로질러 1800km에 이르는 4박5일간의 일정이었다.

발해의 자취따라 1800km... 확실히 보았다 '아! 고구려'

인천공항을 출발한 비행기는 청나라의 초기 수도 선양에 착륙했다. 청나라는 금(金)나라를 세웠던 여진족이 1616년 만주에 세운 나라다. 그런데 금사(金史) 등 사서와 연구논문 등에서 금·청의 건국자들이 고구려의 후예라고 밝히고 있는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700년 이상 만주를 지배했던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 고구려 후예들은 단 30년 만에 고구려를 재건해 발해를 건국했다. 발해가 거란에 멸망한 후 그 땅은 우리 역사에서 멀어졌다. 중국인들은 그곳을 여진이라 불렀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여진족이라 칭했다. 이 때문에 여진의 사람과 나라들에 대한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랴오허 유역에 위치한 선양은 일제 때는 '봉천'이라 불렀다. 청나라 황궁이었던 심양궁을 둘러싸고 있다. 인근에 있는 청태조 누르하치의 묘소는 불립대군과 소현세자가 불모로 잡혀 있던 곳이기도 하다. 선양에서 동쪽으로 170km 달리면 푸순(撫順)시의 신빈에 닿는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청나라 황제 조상 묘인 정영릉을 둘러본 후 지린성 쪽으로 이동해 지안(集安)에 도착했다. 지안은 고구려의 두 번째 수도다.

지안은 강국 고구려의 오랜 도읍지였기 때문에 수많은 고구려 유적이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 있다. 국내성은 압록강변 통구평원에 자리 잡고 있으며, 서기 3년에서 427년 평양 천도 시기까지 425년간 도성이 있던 곳이다. 성벽과 성문터, 치 등이 뚜렷하게 남아 있는 역사의 현장이다. 성터 위에는 안타깝게도 아파트와 상가가 자리 잡고 있다.

국내성 북쪽 2.5km에는 전시를 대비해 짝을 이루어 쌓은 산성자산성(일명 환도산성)이 있다. 이 성은 현존한 산봉우리들로 둘러싸여 있어 말 그대로 천연의 요새다. 1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잘 쌓여진 성벽이 그대로 남아 고도의 축성기술과 전쟁에 대해 얼마나 철저히 대비했는가를 웅변하고 있다. 인근에 산재해 있는 고구려의 위용을 웅변하는 1775자의 호태왕비, 태왕릉, 장군총 등을 차례로 둘러봤다. 귀족 묘지가 모여 있는 오회분 중 5호묘에서는 세실을 이기고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는 사신도 벽화와 마주쳤다.

고구려 두번째 도읍 중지안
성벽과 성문터만 덩그러니
성터 위 아파트·상가 '썸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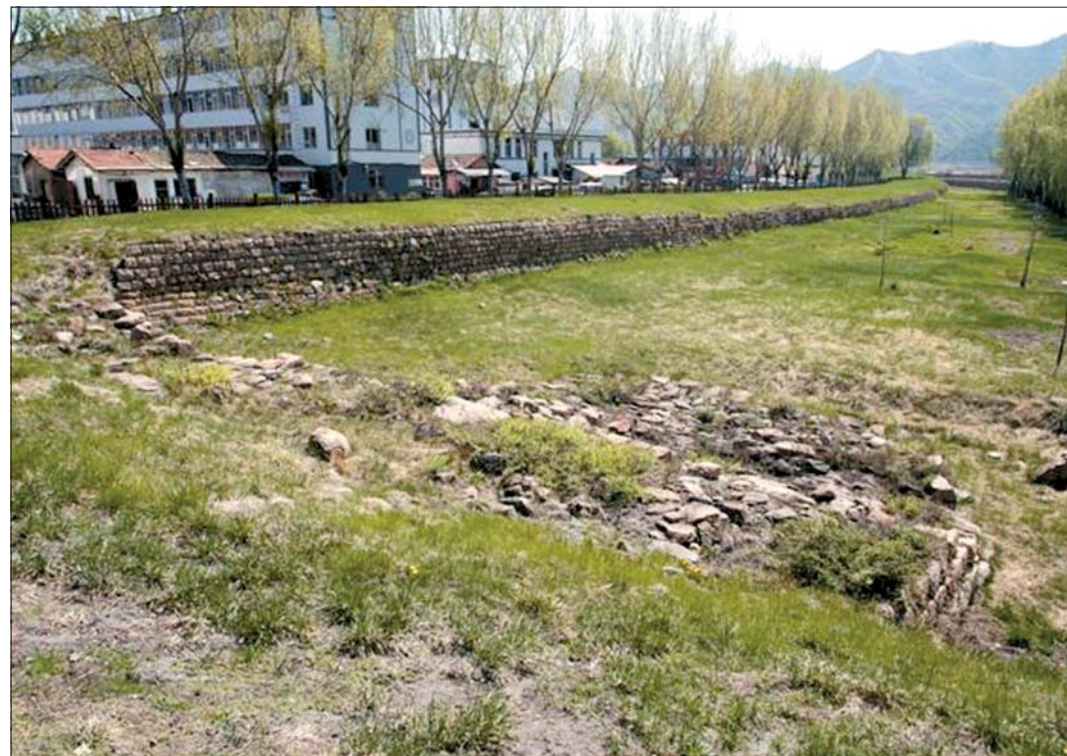
백두산 氣받고 달려간 곳 엔지
한때 40%가 조선족이었던만
돈벌러 떠났나... 한족들로 북적

일송정·해랑강 있는 용정 거처
국경도시 투먼에 다다르니
'두만강 푸른물에~' 노래가 절로



다음 여정은 백두산. 천지 등정으로 4개길 중 '북파'를 택했다. 지안에서 약 400km 떨어진 백두산 관광진기지인 '이도백하'에 도착해 여정을 풀었다. 백두산 천지는 기후가 급변해 그 자태를 쉽게 보아주지 않는다. 다음날 아침 일찍 약 60km 산길을 달려 백두산 천지에 도착했다. 날이 너무 청명해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데, 천지에는 아직 눈이 그대로 남아 있다. 한눈에 봐도 한민족의 영산으로 손색이 없다. 날이 맑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는 천지는 물론 건너편 북한의 산까지 뚜렷이 보인다. 이런 날은 정말 드물다고 안내인은 몇 번을 감탄했다.

백두산과 천지를 뒤로하고 쉬지 않고 4시간여 180km를 달려 '화룡'에 도착했다. 거기서부터는 정영진 연변대학 발해사연구소 소장이 직접 안내를 해주었다. 화룡은 한민족 역사의 중심지 중 하나다. 동부여의 발원지이자 발해 중경현덕부가 위치했던 곳



지린성 지안의 국내성 서벽.

이다. 발해 2대 무왕 때 이곳의 서고성으로 천도(742년)해 14년간 수도로 삼았다. 서고성은 토성으로 외성과 내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외성은 둘레가 약 2.7km, 내성은 약 1km로 그 흔적이 아직도 뚜렷이 남아 있다. 서고성 인근 용두산 고분군 중 3대 무왕의 딸 정효공주묘에서는 벽화도 발견됐다. 1980년 연변대 연구팀이 발굴에 성공했다. 방문단을 안내한 정영진 소장이 바로 발굴 당사자다.

화룡을 떠나 약 70km 떨어진 엔지(延吉)로 향했다. 연변조선족자치주 주도인 엔지는 조선족 문화의 중심지로 2000년 무렵만 해도 주민의 40%가 조선족이었으나 이제는 한인 비중이 점차 늘고 있다. 엔지에서 하룻밤을 잔 후 약 30km 떨어진 '용정'을 방문했다. 용정은 해랑강과 일송정, 운동수 시인 생가와 명동교회, 명동학교가 있는 명동촌이 자리 잡은 곳이다. 영화 '동주'의 무대이기도 하다.

용정에서 약 70km 동쪽으로 가면 두만강 국경도시 투먼(圖們)이 나온다. 투먼은 중국 동북지역의 무역·교통 중심지로 두만강 연안에서 북한과 철도로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다. 투먼에서부터는 두만강을 따라 접경지대를 달리게 되며, 10km 정도 가다 보면 드디어 한반도 최북단지역인 북한의 '풍서'란 곳을 마주 보며 지나가게 된다. 마침 인근에서 사공이 노 젓는 배를 보자 나도 모르게 카메라를 들이켰다. "두만강 푸른 물에 노 젓는 뱃사공..."이 저절로 흘러나온다. 투먼시에서 70km를 더 달리면 국경도시 훈춘에 닿는다. 이곳은 발해 5경 중 하나인 동경유원부가 자리 잡았던 곳이다. 발해 3대 문왕이 신라·일본과의 교류를 염두에 두고 천도해 9년간 수도로 삼았다.

동경유원부의 중심 성터가 바로 팔련성으로, 외성과 내성 터를 비롯해 다수의 유물들이 발굴됐다.



흰 눈이 남아 있는 백두산 천지.



중국 '화룡'지역에 위치한 발해 중경현덕부의 서고성.

살아 숨쉬는 발해사의 현장을 돌아보니, 대륙에서 웅비하던 발해인의 숨결이 피부에 와 닿는 듯하다. 훈춘에서 다시 약 60km를 달려 중국·북한·러시아 3국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두만강 하구 '방천'에 도착했다. 나란히 보이는 세 나라 국기가 이 지역 역사를 함축해 보여주고 있는 현장이다. 중국은 여기서부터 단 16km가 육지로 가로막혀 동해와 태평양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동해바다로 향한 염원을 담아 방천탐을 세웠다.

선양에서부터 방천까지의 1800km, 우리 역사의 숨결이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 있는 땅은 한민족 역사를 탐구하는 순례자의 가슴을 설레게 했다. 김호섭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강병규 전 행정안전부장관과 동행한 이번 여행은 동북아역사재단의 고광의 연구기획실장이 안내와 일정관리를 해줘 뜻깊은 역사탐방이 됐다. 김석동 명예기자·최승진 기자 정리

Citylife
June 28 2016 No.534

매일경제

'밴드 어게인'
밴드(Band)의 귀환

영국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토마스 헤더윅'

그녀가 초콜릿을 먹는 20가지 '사소한' 이유

버스타고 가자!
남프랑스 두백이여행

Charming TV
MBN

집, 카페, 문화복합공간이 된 네모 박스
컨테이너의 변신은 무죄

달아서 먹는 것만이 아니야
그녀가 초콜릿을 먹는 20가지 '사소한' 이유

《헤더윅 스튜디오: 세상을 변화시키는 발상》展
영국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토마스 헤더윅'

Office Rule 개혁의 대가로 죽음을 당한 나라 '상암'
자신이 만든 원칙의 함정에 빠져버린
오만한 혁명가

로맨틱 코미디의 정석, '망가져야 사랑 받는다'
《아궁이》 예쁜 척하지 않아 예쁜 그녀들

《엄지의 제왕》 여름 건강 잡는 법
장마철 무사히 보내는 방법은?

노폐물로 찌든 몸속을 청소하라
《천기누설》 만병의 근원, 뱃살 퇴치법!

국내 여행
양평 두물머리

시티라이프 구독 · 광고 문의 : (02)2000-2511

매일경제신문사